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첫번째 단계는 15年이라는 期間동안에, 즉 1980年以前에, 獨立的이고, 비교적 완전한 工業體系를 세우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本世紀內에 農業, 工業, 國防과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全面的으로 推進함으로써 國民經濟를 세계의 선진대열에 속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최초의 제안은 아니었다. 최초의 제안은 1954年 9月, 1期人民代表大會 第1次會議의 개막식에서 행한, “現在 經濟·文化領域이 낙후된 우리국가를 工業化함으로써 고도의, 현대화된 문화수준을 지닌 위대한 國家로 建設한다”라는 內容을 담은 毛澤東의 연설이었다. 周恩來는 당시 政府事業報告²⁾에서 毛澤東의 연설을 보충설명하면서,

“만약 우리가 강력한, 현대화된 工業, 農業, 交通, 運輸, 國防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후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의 革命目標을 達成할 수 없다.”³⁾

라고 말하였다. 이는 곧 現代化推進의 必要性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毛澤東과 周恩來의 發言은 단지 現代化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이었을 뿐이었다. 사실, 現代化計劃은 1975年 여름에 개최된, 病中에 있는 周恩來를 대신하여 鄧小平이 사회를 본 國務院事業會議에서 ‘10年計劃’이 制定되면서부터 윤곽이 잡혀지기 시작하였다. 이 計劃은 한때 四人幫의 방해로 중지되었다가, 四人幫이 제거된 1978年부터 다시 推進되었다. 1978年 2月 26日, 華國鋒은 5期人民代表大會 第1次會議의 政府事業報告를 통해, “本世紀안에 전면적으로 四個現代化를 실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선진대열에 들도록 한다. 따라서 1976年에서 1985年 사이의 10년은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대회에 제출하였다. 그의 계획안은 「國民經濟를 發展시키기 위한 10年

2) 1975年 1月 13日, 第4次全人大 第1次會議에서 행한 周恩來의 “政府工作報告” 參照.

3) 毛澤東과 周恩來의 談話內容. 보다 자세한 事項은, 「毛澤東選集」, 第5卷, p. 133 과 「中華人民共和國第一次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匯刊」, p. 293 參照.

(1976~1985)計劃의 綱要(草案)」로 통과되었던 바, 이로써 ‘半世紀末까지 四個現代化를 實現하기 위한’ 第1段階가 完遂되었다.

‘10年計劃’이 제출되었을 때는 이미 2년이 지난 時點이었으므로 사실 ‘8年計劃’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計劃의 ‘ 좋고 나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도적 人物이었던 華國鋒이 하야한 후에 등장한 鄧小平이 이를 “광범위하고 거대하여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여긴 데 있다. 이윽고 그는 그 다음해(1979年) 3월에 北京에서 열린 中央事業會議에서 ‘調整된 八字決議’를 제출하였다. 또한 6月の 5期人民代表大會 第2次會議에서는, “1979年부터 3年동안에는 國民經濟를 調整, 改革, 整頓, 提高하는 것과 그 調整作業을 공고히 하는 것을 관건으로 삼아 이를 중점적으로 推進한다”라는 내용의 決議가 통과되었다. 이는 ‘10年計劃’에 대한 명백한, 實際의 인 부정이며, 또한 鄧小平의 등단이후에 형성된 鄧·趙路線이 華國鋒執權期에 채택된 政策을 全面的으로 폐기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78年 12月の 第11期 3中全會에서 제시된 所謂, ‘撓亂反正’(잘못을 바로잡음)運動에서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第11期 3中全會에서 鄧小平은 第11次 黨大會에서 決定된 華國鋒의 政策路線을 一切 폐기하였던 바, 그럼으로써 단지 실속없는 目標인 四個現代化만이 남게 되었다. 鄧小平은 現代化를 ‘中國式’으로 限定하였으며, 그의 ‘中國式 現代化’라는 概念은 1979年 3月 31日에 開催된 ‘黨의 理論事業·政治思想 涵養會議’에서 처음으로 使用되었다. 그는, “과거 毛澤東은 農村을 위주로 한 現代化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現在는 반드시 中國의 모든 환경을 포함한 中國式의 現代化를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일찌기 上海에서 中國黨史를 研究하다 후에 中共에 의해 추방되었던 日本學者 橫山宏幸은 그의 「人民中國의 타락」이라는 著書를 통해, “所謂 四個現代化의 진정한 意味는 毛澤東의 政治路線을 폐기하여 50年代에 제기되었던 劉少奇의 經濟主義路線으로 轉換하는 것인 同時에 蘇聯式 社會主義로의 回歸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評하였다.⁴⁾ 결국, 現代化의 ‘中國式’과 社

會主義의 ‘中國式’은 모두 同一하게 실질적인 意義를 지니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 美國國會와 學者들의 初期評價

美國 第97期 國會 第2會期の 聯席經濟委員會(Joint Economic Committee)는 Wisconsin州 出身의 下院議員 Henry Reuss를 會長, 下院議員 Roger Jepsen을 副會長으로 하여 上·下院 各々 18名의 議員으로 구성되었다. 이 委員會는 學者와 專門家를 초청하여 資料를 토대로 中共의 四個現代化問題를 實際的이고 客觀的으로 研究·分析하였다. 그 結果, 1982年 8月 13日에 장장 1천여페이지에 달하는 評價報告書를 本會議에 제출하였는데, 이 報告書는 對外的으로 發表됨으로써 中共의 四個現代化에 관한 美國國會의 初期評價書가 되었다.

評價書는, 中共의 자본축적과 기술인재의 수급정도를 기준으로 評價해 볼 때, 毛澤東의 뒤를 이은 華國鋒에 의하여 1979년부터 進行되었던 四個現代化計劃은 규모가 방대하여 現實的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적합성의 대표적인 例가 바로 1978年에 上海에 건설되었던 寶山製鐵所라고 하였다. 또한, 寶山製鐵所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現代化가 물고 온 엄청난 실패는 직접적으로 中共의 指導者階層으로 하여금 ‘八字決議案으로의 調整’이라는 政策路線을 취하게 만들었던 바, 이 調整政策의 실질적인 의도는 바로 축소와 폐기라고 하였다. 한편 評價書는 調整政策이 1980年代와 그후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中共의 重要政策이 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왜냐하면, 中共이 現代化는 西方의 先進科學技術을 어느정도 흡수·축적하였느냐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外國의 經驗과 그들의 필요조건이 서로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인식했기 때

4) 橫山宏章著, 丁祖威譯, “四個現代化與中共의 墮落”, 「中國時報」, 1981年 8月 12日字.

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評價書에 의하면, 調整政策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가 根本的인 문제가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中共指導者들의 路線은 수시로 변하는 관계로 만일 文化大革命 내지 大躍進時期的 意識이 다시 부활된다면 최소한 軍事現代화가 기타 세 가지의 現代化에 우선함으로써, 결국 四個現代化는 정상적인 균형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⁵⁾

評價書에서는, 中共의 經濟現代化政策과 專門技術 尊重態度는 문호개방 및 그에 따른 日本, 美國, 西方에의 접근을 조장할 것인 바, 이러한 對西方接近姿勢는 中共內部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인구증가압력과 基礎的 統計資料의 결핍은 西方先進技術의 導入과 計劃에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要素가 되는 한편, 政治的 要素의 變化 역시 計劃의 長期的인 實踐을 곤란하게 만드는 要因이 된다고 한다. 더우기, 當時 79세인 鄧小平의 나이를 감안해 볼 때 그의 사망과 그에 따르는 정치권위의 계승문제도 政策變化를 야기시킬 수 있는 變數가 되는 것이었다. 비록 鄧小平이 계속 집권한다 하더라도, 보수파의 세력증대나 文化大革命理念의 부활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모든 政策을 정체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保守勢力의 增大는 '延安精神'의 부활을 가져오고, 이는 반드시 四個現代化의 推進에 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⁶⁾

國會에 초청된 學者들은 中共이 직면한 내부의 난점을 15가지의 문제로 열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問題點들이 극복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現代化 成功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以下에서는 이러한 問題點들을 종합, 現在 中共의 情勢와 대조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1. 中共의 기존개혁정책은 '굳건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鄧小平이 推進하는 現代化는 毛澤東이 죽기 전에 周恩來가 주장하였던 現

5) John P. Hardt, "Summary", *China Under the Four Modernizations*, Selected Papers Submitted to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1982), Vol. I, p. 1.

6) *Ibid.*, pp. 2~3.

代化에 비해 어느 정도의 改革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시 美國學者들은, 中共은 文化大革命이 물고 온 막대한 파괴와 장기적인 경제적 폐쇄와 낙후를 경험삼아 1980年代에는 '安定된 前進'이라는 기치아래 政策을 推進하여야 하며, 결코 급격한 變化를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⁷⁾ 그러면서도 그들은 四個現代化가 진정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中共의 法律, 憲法, 行政組織에 대한 실질적인 改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中共學者들의 見解에 同意하였다. 즉 그들의 見解에 따르면, 中共은 필수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政治體制改革을 골자로 한 政治現代化를 實行에 옮겨야만 하고,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經濟·科學技術 등이 포함된 四個現代化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⁸⁾ 또한 그들의 見解에 의하면, 鄧小平이 1982년에 착수한 改革政策中에서 구체적인 조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個人自由市場의 開放, 多數의 重工業計劃의 취소 또는 연기를 토대로 한 輕工業의 發展推進, 人民生活改善, 科學技術教育의 復活, 靑年들에 대한 歐美·日本으로의 유학장려, 軍隊裝備強化, '한자녀운동'의 엄격한 실시를 통한 인구압력감소 등인데, 이러한 모든 改革政策들은 비록 지엽적인 것들이기는 하나, 政治改革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간주된다.⁹⁾

2. 人口問題 및 都市·農村 사이의 隔差問題

다음으로 중시할 問題點은, 中共의 人口抑制, 都市·農村간의 隔差, 農·工業의 差異調整問題 등이다. 美國學者들은 人口抑制問題가 장차 中共의 가장 큰 問題로 부각될 것이며, 中共이 居住移轉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

7) Robert F. Dernberger, "The Chinese Search for the Path of Self-Sustained Growth in the 1980's: An Assessment", *Ibid.*, pp. 19~20.

8) Robert G. Sutter,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Four Modernizations", *Ibid.*, pp. 77~78.

9) Arthur G. Ashbrook, Jr., "China: Economic Modernization and Long Term Performance", *Ibid.*, pp. 100~101.

과 農民의 都市轉入을 禁止하는 政策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절대다수의 大陸人民을 영원히 빈곤과 우매함속에서 生活하도록 만드는 行爲라고 지적하고 있다.

評價書는, 中共이 실시한 1978年부터의 人口調査資料를 근거로, 1959年과 1961年 사이의 기근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제외하고는 中共의 人口가 계속 증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中共이 아무리 ‘한자녀운동’으로 人口를 엄격히 抑制한다고 하더라도 本世紀末에는 12억을 초과함으로써 中共은 멜더스의 人口論에서처럼 심각한 위협을 받는 狀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中共의 人口問題는, 멜더스가 지적한 人口增加로 인한 주거·식량의 부족 뿐만 아니라, 都市·農村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四個現代化의 實現을 根本적으로 不可能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나마도, 1980年의 人口調査資料에 관한 討論過程에서 資料에 나타난 농촌인구수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어졌다. 모두가 고의적으로 人口를 줄임으로써 家族計劃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보고는 잠재되어 있는 都市·農村간의 隔差問題에 대한 상황판단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¹⁰⁾

大陸의 都市·農村간의 隔差問題는 실질적으로 農業과 工業 사이에 內在하는 差別問題이다. 中共이 大陸을 점거한 후, 1950年代에 집행한 大陸의 경제합병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集團農場과 企業의 國營化가 그것이다. 前者는 人民公社 및 一切의 公有土地를 간부들의 지도아래 農民·勞動者가 경작하여 農產物을 生産해 내는 것이었고, 後者는 모든 工場, 礦業, 交通, 商業, 서비스業을 간부의 지도에 의해 근로자가 노동·운영해 나가는 것이었다. 兩者의 差異는 運營方式에서 나타난다. 우선 企業의 國營化는, 人口의 20%를 차지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勞動에 대한 댓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政府는 매년 일정한 예산을 기업에 투

10) John S. Arid, "Recent Demographic Data From China: Problems and Prospects", *Ibid.*, pp. 172~173.

자하여 경영을 보조하는 方式으로 運營되어졌다. 즉, 公營企業은 政府財政의 一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生活을 保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전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農村人口는 임금수입이 없었으며 예산상의 보조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이 스스로의 生活을 責任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시에 모든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야 하였다. 이는 한 制度아래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두 가지의 계급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더우기 中共은 적극적으로 農村人口의 都市轉入을 금지하고, 農村의 都市化도 抑制하였기 때문에 大陸의 農村 및 都市人口는 각각 相異한 적대적 환경속에서 生活하였고, 갈수록 그 격차는 매우 심해졌다. 中共이 農村의 都市化를 禁止한 理由는, 中共에게 있어서 都市는 순수한 소비집단으로 비쳐졌던 관계로 都市化의 擴大는 전혀 이로운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中共이 취한, 都市로의 人口移動과 農民의 근로자로의 轉換을 금지하는 政策은 農民의 盲目的인 都市轉入과 農村의 人口增加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都市·農村間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되었고, 그만큼 中共의 農業現代化의 實現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¹¹⁾ 결국, 만약 中共人口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방대한 農業人口가 現代化될 수 없다고 한다면, 中國의 現代化는 헛일이 되고 말 것이다.

3. 工業現代化의 難點

工業의 現代化는 어디에서부터 착수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中共의 가장 곤란한 問題이다. 1978年 3月의 5期人民代表大會에서 華國鋒은 政府事業報告를 통해 중공업우선의 노선을 제시하였다. 그는 1977년에 2,500만톤이었던 鐵鋼生産이 1985년에는 6,000만톤에 달할 것이고 석유를 포함한 工產品의 生産量은 年平均 10%씩 증가하리라고 예견하였는데, 당시

11) John Philip Emerson, "The Labor Force of China, 1957~80", *Ibid.*, pp. 235~236, also Leo A. Orleans, "China's Urban Population: Concepts, Conglomerations and Concerns", pp. 268~270.

일부 西方經濟學者들은 이를 根本적으로 下可能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982년에 이르러 가장 기대가 모아졌던 石油生産量은 증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러한 動力資源의 부족은 후에 工業化의 基礎에 至대한 영향을 미쳤다.¹²⁾

1982년에 世界가 中共의 工業現代化에 대해서 느낀 가장 절망적인 事件은 4年間 經營되어 왔던 寶山製鐵所의 실패였다. 寶山製鐵所는 가장 發展된 최대의 外國合作建設의 모델로서, 경제대국인 日本의 많은 재벌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120여 개의 대형공장설비계획이 포함된 '10年計劃'은 日本經濟가 大陸으로 대거 진출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러나, 寶山工場의 2次 건설공정중에 中共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로 기타 대형경제건설도 모두 취소되었다. 결국 寶山工場은 中共의 工業現代化 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中共이 얻은 유일한 수확을 든다면, 四個現代化는 關丹주의체제下에서 외국으로부터 科學技術을 도입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¹³⁾

4. 科學技術 및 國防現代化의 問題

科學技術은 現代化의 母體이다. 그것은 社會의 폭넓은 지지와 그것에 부합되는 노력위에서 이룩되어지는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자는 극소수이고 우매한 민중은 절대다수인 社會에서는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위한 기초가 결코 마련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中共의 國防現代化는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적으로써 적을 견제하는' 방법외에 달리 취할 방도가 없다. 中共의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2000年代에 蘇聯을 초월하여

12) Robert M. Field,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Chinese Industry: 1952~79," in R. M. Field and Judith A. Flynn, "China: An Energy-Constrained Model of Industrial Performance Through 1985", *Ibid.*, pp. 335~357.

13) *Ibid.*, pp. 304, 312, 314.

강력한 先進國家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農業, 工業,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完遂함으로써 強力한 國家建設을 위한 양호한 社會基礎를 확립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¹⁴⁾

Ⅲ. 開放의 活成化로부터 反‘資產階級自由化’까지

1979년에 開催된 3中全會以後, 中共이 집행하고 있는 政策의 두가지 특징은 對外開放과 對內的 經濟活成化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對內的으로는 ‘包產包幹(生産量의 責任制)’과 自由市場의 開放으로 個人經濟를 자극하고 一部分의 ‘致富’를 격려하는 것이고, 對外的으로는 1979年 7월에 深圳, 珠海, 汕頭, 廈門의 4大 經濟特區를 設立하고, 1984年 3월부터 연해지역 14개 항구를 開放하는 동시에, 이러한 特區들 모두 ‘技術, 管理, 知識, 對外政策의 항구’로 活用하는 것이다. 1985년에 鄧小平은 對外開放政策을 긍정적으로 評價하며, “우리가 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는데, 그동안의 결과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深川經濟特區는 하나의 실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現在 우리의 經濟特區設立은 적절한 政策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鄧小平派는 이 改革을 ‘제 2의 革命’이라고 규정하고, 1986年 9월에 발표한 ‘七五計劃’에서도 經濟特區政策을 긍정적으로 表現하면서, “經濟特區에서는 수출 위주의 생산에 전념함으로써 外화획득에 전력을 기울인다”라고 하였다.¹⁵⁾

1979년부터 1986년까지의 8年동안 中共學者들은 모두 ‘經濟活成化’라는 형식으로 나타난 資產階級式 政策을 찬양하였다. 1980年 11月 中國社會科學院 副院長 許濂新은 8명의 代表團을 이끌고 Wisconsin州에서 開催된 ‘中共의 經濟發展戰略選擇에 관한 討論會’에 美國學者들과 함께 參加하였다. 會議에 參席한 果文森은 그의, “經濟發展過程에서의 農·工業의

14) Amy A. Wils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ransfer”; Ronald G. Mitchell, “Chinese Defense Spending in Transition”, *Ibid.*, pp. 553, 568, 605.

15) “七五計劃”, 「文匯報」(香港), 1986年 9月 26日字.

均衡問題”라는 論文을 통해 中共의 과거 30年 동안의 비균형적 발전상과 장래의 改善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52年부터 1979年 사이의 國家基本建設에 대한 投資合計는 약 6,300억원으로 그중 農業에 대한 投資가 12%, 輕工業 5%, 重工業이 50%以上이었다. 본래 이러한 投資比는 農·工業의 發展을 유도하기 위해 設定된 것이었지만, 결과는 사실상 기대와 어긋난 것이었다. 즉, 農·工業에 대한 投資比率가 잘못 조정되었던 관계로 農·工業의 生産은 계속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農民의 生活水準도 함께 낮아졌던 것이다.

3中全會 以後 中共은 農業과 工業의 발전을 동일한 비중에서 추구하여야 한다. 重工業은 農業과 輕工業에 봉사해야 하며, 國家는 農·工業의 均衡을 실현하여 農·工業의 협상가격 차이를 막아야 한다. 또한 商品價格은 生産과 생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立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⁶⁾

許濂新은 四人幫이 타도된 이후에,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모두가 同一하게 보상받는다는 平均主義는 비판받게 된 반면, 노동에 따른 차별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이윤과 국민수입의 증가의 토대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農·工業上의 差別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은 농민의 수입을 훨씬 능가한다. 근로자의 연평균임금은 705원이며, 이외에도 그들은 국가보조의 단체복지이익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農民의 年間收入은 단계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農民의 實收入은 약 80여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個人私有地와 家庭副業에서 나오는 收益이 보태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收入은 결코 근로자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그는, 人口는 많은 대신에 資本金은 적은 中國的 狀況下에서 國民經濟를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四個現代化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四個現代化의 實踐에 있어서는 自力更生을 위주로 하되, 부족한 部分은 해외원조로 보완한다는 원칙이 건

16) 果文森, “中國經濟發展中工業和農業的平衡問題”, 「中美經濟發展戰略抉擇討論會報告文集」(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年), pp. 13~22.

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와 같은 見解는 모두 鄧小平執權後에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들이었다.

鄧小平은 가혹한 共產主義의 統治가 다소 완화되고 開放되는 것이 바로 ‘中國의 特色的 社會主義’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路線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였다. 1982年 9月 1日의 12次黨大會에서 鄧小平은 開會辭를 통해 ‘中國의 特色的 社會主義建設’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中國의 特色的 社會主義’인가? 이에 관하여 鄧小平은,

“우리의 現代化建設은 반드시 中國의 實際生活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상과 결합시켜 우리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中國의 特色的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것이 우리가 長期的인 歷史經驗을 통해 얻어낸 基本的인 結論이다. 中國이 당면한 問題는 中國의 狀況에 따라, 또한 中國人 自身の 力量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곧, 獨立自主, 自立更生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역설하였다.¹⁸⁾

鄧小平의 많은 연설중에서, 所謂 ‘中國의 特色的 社會主義’의 本質을 나타낸 것이 바로 “對外經濟開放, 對內經濟의 活成化”이다. 한마디로 經濟問題이다. 그는,

“모든 農村과 都市에서 小數人의 ‘致富’를 허용해야 한다. 근면을 통해 축적된 부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農村에서 규모가 큰 私有地가 形成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건이 충분히 造成되지 않았다.”

고 판단하였다.¹⁹⁾ 더우기 鄧小平은 1983年 6月, 北京에서 開催된 ‘科學技術政策討論會’에 參席한 많은 外國專門家들과의 談話에서 자신있게 그

17) 許濂新, “閉幕發室”, *Ibid.*, pp. 151~152, 155~156.

18) 鄧小平, “中國共產黨第12次全國代表大會開幕詞, 1982年 9月 1日”,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香港: 三聯, 1985年), p. 3.

19) 鄧小平, “各項工作都要有助於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1983年 1月 13日”, *Ibid.*, p. 10.

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中國式 現代化이다. 그것은 人民이 처한 實際狀況과 條件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自立更生이 위주가 된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人民들은 기뻐하고, 우리 또한 자신감을 가졌다. 우리의 政策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對外開放은 더욱 開放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길은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넓어질 것이다. 길이 좁아짐으로써 가증되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우리가 돌아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단지 낙오와 빈곤의 상태일 뿐이다.”²⁰⁾

鄧小平이 50年代와 70年代에 不變의 大政策으로 여겼던 ‘開放·活成化’ 政策은, 1984年 第12期 3中全會에서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이 통과됨으로써 보다 확고해졌다. 鄧小平은 그해 10月 ‘顧問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에서, “鄧小平도 胡耀邦·趙紫楊도 이 政策을 바꿀수 없다. 現在 決定된 政策方針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鄧小平의 긍정적인 說明에도 불구하고, 이 政策에 反對하는 保守派는 이미 하나의 부정적 세력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發言하였다.

“開放하지 않으면 안된다. 開放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우리 동지들은 나쁜 것이 유입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資本主義로 變質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아마도 一部 年老한 同志들은 한평생동안 社會主義·共產主義體制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갑자기 資本主義가 들어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데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²¹⁾

이 연설에는 ‘開放·活成化’ 路線과 ‘反資本階級自由化’ 路線 사이의, 즉 鄧·趙의 改革派와 陳雲·彭眞의 保守派 勢力間의 투쟁가능성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1986年, 大陸의 經濟學者들은 鄧·趙體制的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著述

20) 鄧小平, “路子走對了, 政策不會變”, *Ibid.*, p. 14.

21) 鄧小平, “在中央顧問委員會第3次全體會議上的講話, 1984年 10月 22日”, *Ibid.*, p. 49~55.

을 통하여 “學術은 政治에 귀속된다”는 관점에서 毛澤東이나 鄧小平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일단 中央에서 政策이 決定되면 各省의 學者들은 이를 찬양·고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바, 이것은 大陸知識人들의 責任이었다. 1980년에는 大陸의 經濟改革에 부응하여 經濟에 관한 ‘輕型構造論’이 대두되었다. 이 理論에 따르면, 工業總生産에 있어서 農業과 輕工業은 한 조가 되어 60%以上の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고, 重工業은 40% 以下の 비중을 차지하도록 經濟構造를 調整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見解는 經濟界, 理論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한동안 基本理論으로 정착되었었다.²³⁾ 그런데, 中共의 經濟構造에 대하여 어떤 學者는 資料에 근거하여, 1959年, 1960年, 1977年, 1978년에 重工業比重이 40%를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每年 農業·輕工業의 比重이 60%以上을 차지했던 반면, 重工業의 比重은 30여%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大陸의 經濟는 이미 輕型構造化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構造를 改革할 必要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中央이 추진하는 ‘中國의 特色的 社會主義國家 建設 政策’은 實現可能하다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은 見解를 앞에서 언급한 許濂新, 果文森의 論文內容과 비교해 보면, 中共의 學者들이 인용하는 經濟指標은 각기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만큼 사람들이 그들의 見解를 수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

이 期間동안 中共의 모든 개혁조치는 대부분의 大陸學者들에 의하여 거의 成功한 것으로 묘사되어졌다. 예를 들면, 일찌기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 于光遠은 그의 論文, “實踐中인 中國의 社會主義 經濟體制改革”(1984)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3 中全會以後 몇년동안 經濟體制 改革措置중에서 農村에 대한 聯合的 生産責任 制만이 實踐에 옮겨진 것은 아니었다. 企業의 自主權確大, 장려금의 상한선 철폐

22) 廖季立, 商義生, “把我國的重型生産結構調整爲輕型生産結構”, 「紅斯」, 1980年, 第16期.

23) 王夢奎, 「我國社會主義建設道路的探索」(河南人民出版社, 1984年), p. 224.

24) *Ibid.*, pp. 225~226.

폐, 상품의 유통구조 開放, 沿海都市의 開放, 經濟特區의 設立 등 모든 것이 成功했다고 말할 수 있다.”²⁵⁾

이상과 같은 樂觀의인 見解는 ‘中國의 特色의 社會主義建設’의 成功을 긍정적으로 보는 觀點이다. 鄧小平은 2千年까지 400%의 發展을 成就하여 國民總生産을 1조달러에 이르게 하며, 그로부터 50年 후에는 世界先進隊 列에 들어 中國特有의 現代화된 社會主義를 建設한다고 말하였다.²⁶⁾ 이러한 鄧小平의 發言은 中共의 中央黨校의 政治教材인 「中國社會主義現代化建設問題」에 수록되어 있다. 더불어 教材에는 ‘中國의 特色의 社會主義建設’을 실현하기 위한, 現代科學技術, 農業의 輕重問題 등의 10大關係와 自力更生 등의 方法이 포함된 6종류의 ‘中國現代化路線’도 첨부되어 있다.²⁷⁾ 더우기 1986年 4月의 6期人民代表大會 4次會議은 ‘七五計劃’을 통과시키면서, “기본적으로 中國의 特色의 新型社會主義 經濟體制의 기초가 확립되었음”을 천명하였다.²⁸⁾ 결국 이 모든 것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이 고조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작년말 大陸에서는 知識人들에 의한 民主와 自由爭取를 요구하는 거대한 운동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保守派에게 反‘資產階級自由化’運動의 구실을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두가지 運動은 鄧·趙派의 經濟體制改革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서 결코 현재의 집권자들이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25) 于光遠, 「論我國的經濟體制改革, 1978~1985」(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5年), p. 166.

26) 鄧小平, *op. cit.*, pp. 52~53.

27) 參閱吳振坤·王樹雲, 「中國社會主義現代化建設問題」(瀋陽: 中共中央黨報出版社, 1984年).

28)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7個5年計劃, 1986~1990”, 「六屆人大第四次會議文件匯編」(北京: 人民出版社, 1986年4月), p. 52.

Ⅳ. 反‘資產階級自由化’와 中國現代化

1986年 9月 28日, 中共의 第12次 6中全會에서는 ‘社會主義 精神文明 指導方針’에 관한 決議가 통과되었다. 6中全會에서는 人事나 政策에 관련된 決議가 하나도 없이 오직 위의 決議만이 유일한 文獻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이 決議만을 강조함으로써 經濟改革과 對外開放으로 야기된 악영향을 일소하고 분규를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즉, 決議의 目的은 民主와 自由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의도하던 바와는 달리 決議의 通過는 年末에 이르러 全大陸에 걸친 民主·自由爭取運動의 전면적인 발발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決議는 國家, 人民, 勞動, 科學, 社會主義에 대한 愛情을 강조하는 한편, 黨員으로 하여금 黨風을 진작시키도록 하는 同時에 民主·法治·紀律教育을 추진하며, 마르크스主義와 毛澤東思想을 堅持하고 지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경직된 教條式 規範은 現代化·科學化에 필요한 自由民主的 意識의 배양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年末에 發生하였던 民主·自由爭取運動은 6中全會의 決議에 대한 反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國內經濟의 開放·活成化를 골자로 한 資產階級自由化라는 정책적 배려하에 大陸의 農村에서는 많은 富戶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個別的 商工業體가 發展하기 始作하였다. 上海式, 廣州式, 溫州式, 四川式的 個別業體들이 모두 新興資本家로 變貌하였다. 中共政府의 統計資料에 의하면, 1985年末 全大陸의 工·商業人口는 1,700萬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에 어떤 경우는 오로지 事業하는 것 자체만을 중시하는 것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오로지 투기만을 목적으로 하며, 또 어떤 경우는 새로운 知識과 새로운 方法으로 富를 축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한편으로 公營企業의 기능을 대신해줌으로써 公營企業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객이 되게 하는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급 간부들과 야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풍조를 조장하기도 한다.

多數의 公營企業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資金을 投入해 建立한 經濟特區도 점차 政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금년 2월에 열렸던 ‘經濟特區會議’도 政府의 經濟特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에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中共當局은 1984년부터 經濟特區가 投資한 액수만큼만 限界的으로 發展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中共當局은 經濟特區에 대한 규모축소를 단행하였고 그만큼 特區에 대한 열의로 감소되었다. 1986년의 統計를 보면, 4곳의 經濟特區가 지닌 農·工業의 총가치는 76억원이었고 그중에서 10억원은 새로이 창출된 자산이었다. 그러나 창출된 액수는 경제특구의, 수입증가를 통한 財政的 發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것은 經濟特區를 관리하는 비용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經濟特區는 스스로 發展하지 못하는 限界에 부딪혔던 관계로 政府當局이 직접개입하여 發展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²⁹⁾

對外開放과 對內的 經濟活成化라는 개혁조치는 계속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고 있었다. 이에 1985년 7월, 陳雲은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對外開放과 對內經濟活成化的 조류에 편승하여 몇몇 黨政軍의 機關員과 黨政의 幹部 및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商業에 뛰어들었다. 단지 10여개의 省에 있는 都市만을 조사해 보아도 昨年 第4分期 以後부터 갑자기 2만여개에 달하는 會社들이 設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 상당수의 會社들은 犯罪자와 不法外國商社와 結탁하여 상호거래하고 있다. 改革이라는 美名下에, 거래가 가능한 것은 모두 사고 팔리고 있으며, 뇌물이 오고 가고, 암거래가 성행하고, 사기가 횡행하며, 관세가 포탈되고, 가짜약과 술을 제조하여 부를 축적하고, 人命에 피해를 가하고, 저질스러운 불법비디오필름을 판매하며, 유부녀들을 유혹하여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의 온갖 추악하고 나쁜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는 資本主義의 퇴폐사상이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黨과 社會에 침투하고 있다.”³⁰⁾

29) “特區沈疴難起，谷牧束手”，「百姓」（香港），第139期，1987年3月1日。

30) 陳雲，“爭取黨風根本好轉”，紀委會六全上講話，1985年7月，「人民日報」，1985年7月15日字。

對外開放과 國內經濟活性化는 탐욕과 사기로 점철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中共大陸에서는 官과 商이 聯關係를 맺는 것이 하나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中共幹部들의 意識속에는 官과 商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公營이나 國營企業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公務員, 즉 '官員'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同一하게 '官員'의 신분으로 工商企業體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幹部와 그들의 子女 및 그들과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企業體를 운영할 수 있는 特權을 지닌다. 그러나 비록 친척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금전으로써 얼마든지 친척관계를 조작할 수 있다. 個別企業體는 아직까지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난 몇년간 個別企業體를 운영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었다. 그러나 公營企業體를 운영한 사람들의 '致富'程度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78年의 5次全人大會에서 中共은 向後 鐵鋼生産量을 2,500만톤에서 6,000만톤으로 증가시키고, 石油生産量을 年 10%씩 증가시킬 것이라고 發表한 바 있다. 1984年의 「中共經濟年鑑」과 中共 國家統計局의 1986年度 統計資料를 토대로 1983년부터 1985年 사이의 기간동안에 變化한 6個 主要工產品의 生産量을 整理해 보면 아래의 表와 같다.³¹⁾ 表에서도 나

구분 \ 품목	原油	石炭	電力	銑鐵	鋼	시멘트
1983年度 生産量	1.06억톤	7.15억톤	3,514KW	3,738만톤	4,002만톤	1억 825만톤
前年比 超過率	3.9%	7.4%	7.2%	5.3%	7.7%	13.7%
1985年度 生産量	1.31억톤	8.70억톤	4,455KW	4,054만톤	5,205만톤	1억 6156만톤
前年比 超過率	4.6%	0%	8.5%	9.8%	11.2%	10.7%

타난 바와 같이, 6個 主要工產品의 年間生産量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生産量에 대한 통계의 정확도에 있다.

31) 1983年 資料는, *Almanac of Chinese Economy, 1984* (Hong Kong: Modern Cultural Co. Ltd., 1985), p.19 參照. 1985年 資料는, “中共關於一九八六年 國民經濟和社會發展的統計公報”, 「光明日報」, 1987年 2月 22日字 參照.

1986年末에 大陸에서는 自由·民主爭取의 움직임이 全面的으로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고조는 역으로 反‘資產階級自由化’運動을 야기시켰다. 비록 自由·民主爭取의 움직임은 1987年 1月 16日의 胡耀邦의 失閣과, 年初에 鄧小平이 행한 “그들로 하여금 피를 좀 흘리게 하지”라는 세차례의 發言 및 위협적인 진압방법에 의하여 점차 안정되었으나, 反‘資產階級自由化’運動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反‘資產階級自由化’運動에서 어느 派가 승리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中國大陸의 現代化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中共의 改革·開放·經濟活成化와 일부 사람들의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발상은 1920年代 初期에 발표된 레닌의 「新經濟政策」에서 습득된 것이다. 레닌은 執權후에 ‘軍事共產主義’를 실시하여 개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투쟁을 종식시켰는데 그로 말미암아 러시아에서는 유례없는 기근이 발생하여 전국토가 황폐해졌다. 이에 레닌은 1921年 4월에 ‘新糧食稅’를 制定하면서 個別經濟를 허가하고 自由市場을 부활시켰다. 레닌은 個別經濟를 小資產家, 小私有家라 칭하면서, “共產黨員이 資本主義階級の 專門家로부터 배우는 것을 우려하지 말라. 배우기 위해서는 과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³²⁾ 鄧小平도 레닌의 말을 인용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利得을 얻는 것은 資本主義가 아니라 바로 國家와 人民이다”라고 하였다.³³⁾

60여년전, 레닌은 러시아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農民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하나의 작은 農業國家에서 優位를 차지하는 勢力은 바로 自生的으로 形成된 小資產階級이다. 왜냐하면 大部分의 農地耕作者들은 모두 小商品의 生産者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이 小商品의 生産者들이 모두 투기적 商人들이라고 단정지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요투기대상이 되었던 품목이 바로 양식이었기 때문이

32) 레닌, “論糧食稅”, 「레닌選集」, 第4卷(北京:人民出版社, 1960年), p. 539.

33) 鄧小平, *op. cit.*, p. 56.

었다. 그가 실행에 옮긴 ‘新經濟政策’은 내용상 農民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인 目的은 個別經濟를 集團所有制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존재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는 農民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는 社會主義에 대해 鬪爭하는 國家資本主義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國家資本主義 혹은 社會主義를 反對하는 小資本階級과 個人資本主義의 聯合이 존재한다. 小資產階級은 國家의 어떠한 간섭이나 감시를 거부한다. 투기적 상인이나 이익만을 도모하는 간사한 상인들은 모두 극렬한 파괴자이다. 이들은 바로 우리 國家內에 존재하는 최대의 적인 동시에 소비에트政權의 經濟政策에 대한 最大의 敵이 된다. 自生的인 小私有者와 個人資本主義勢力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法律上的 規則을 위반하고, 암암리에 투기를 자행하는 등, 소비에트의 法律을 파괴하고 있다.”³⁴⁾

中共은 中央政府의 文書를 통해, 中共內에서 대두되고 있는 問題를 처리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表明하였다. 今年度 上半期에 나온 8件의 中央文書에서는 모두 反‘資產階級自由化’ 問題를 主要事項으로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1月과 2月 사이의 文書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月 4號文書의 ‘七項指示’에서는 이를 매우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七項指示’에서 강조된 內容을 간추려 보면, “反‘資產階級自由化’를 當代의 課題로 삼아야 하며, 이를 확실하게 統制해야 한다”, “農村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經濟領域에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政策의 限界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左傾’을 범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높은 技術水準을 유지해야 하며, 政治思想教育事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鄧小平과 趙紫陽의 연설도 反‘資產階級自由化’를 主要內容으로 삼고 있는 바, 그들은 “政策은 變하지 않는다. 農村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陳雲·彭眞 등의 保守派가 제기하는 問題가 지나는 심각성에

34) 레닌, *op. cit.*, pp.507~516.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中共은 1986年 上半期에도 鄧小平의 「中國의 特色의 社會主義建設 改訂本」을 大量으로 印刷·發行하였는데, 이번에는 特別히 昨年末과 今年初에 발표된 鄧小平의 연설내용을 증점적으로 수록하였다. 本書에 수록된, 鄧小平이 강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現在에 制定된 方針이나 政策, 戰略 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 “計劃에 근거하여 先進資本主義國家의 技術과 기타 우리나라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 物品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절대로 우리나라에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을 배우거나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政治體制改革을 實踐하지 못한다면 經濟體制改革의 成功을 保障받지 못한다”, “필히 4個項의 基本原則을 준수한다면 결코 우리는 變化하지 않을 것이며, 동요하지도 않을 것이다.”³⁵⁾

V. 中國現代화와 共產主義

1987年 4月號「리더스 다이제스트」中文版에는 세파이어(William Safire)의, “中國大陸은 10年마다 한번씩 動搖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中國大陸에서는 每 一定한 時期에 한번씩 動亂이 發生한다. 당신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다면 ‘中國의 10年주기의 動搖’를 나타내 주는 주기표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46年에서 1949年까지를 中共政權成立期로 간주하면서, 1957年에 단행된 毛澤東의 反右派運動을 통한 知識分子除去, 1966年の 文化大革命, 1976年の 毛澤東死亡과 四人幫除去 등의 歷史的 事件을 예로 들어

35)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增訂本, pp. 71, 126, 137, 154.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금 또 십년하고 몇개월이 지났다. 10年前에 四人幫을 몰아낸 鄧小平은 자신이 세운 開放政策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立場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미 82세의 鄧小平에게 있어서 ‘한다면 하는’ 推進力은 감퇴하였다. 그는 자신이 선출한 胡耀邦을 해야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鄧小平 本人과, 그의 資本主義的 色彩를 띠고 있는 理念이 ‘10年週期的 動搖’라는 순환적인 변화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³⁶⁾

‘10年週期的 動搖’,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反‘資產階級自由化’는 또 하나의 動搖의 시작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크게 타격받는 것은 ‘中國現代化’이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中國人民들이다. 따라서 共產黨의 統治와 共產主義思想의 테두리內에서 中國現代化를 成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원인을 分析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0年週期的 動搖’는 路線鬭爭을 구실로 한 실질적인 權力鬭爭에 의해 發生된 것이었다. 共產黨의 권력이양은 民主政治體制의 영도자의 직위이양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民主政治體制下에서 새로 등장한 지도자는 바로 舊指導者의 政策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람인 반면, 共產社會下에서 새로운 支配者와 舊支配者와의 關係는 투쟁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적대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新任支配者는 前任支配者의 政策을 反革命的, 走資派的, 左派的, 右派的 등으로 간주하여 왔고, 그럼으로써 中國大陸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中國의 역사는 험난한 파도와 같은 시간적 변화속에서 영웅호걸이 부단히 교체되는 人間鬭爭으로 얼룩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政策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그 결실을 얻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았다. 결국, 中國現代化가 成功하기 위해서는 國家의 政策을 확고

36) 「讀者文摘」, 中文版, 1987年4月號, p. 35.

하게 정립한 후, 代代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中共의 政策은 專門家の 研究過程이나 統計資料에 의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집권영도자의 지도방침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國際情勢上 必要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政策을 立案한다. 따라서 中共의 政策은 경솔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實現은 지극히 不可能하다고 여겨진다. 毛澤東의, “15年內에 英國을 따라 잡는다”는 구상이라든가, 鄧小平·趙紫陽派의 ‘西紀 2千年代의 計劃’ 등은 代表的인 例라 할 수 있다. 때문에 中國에서는 前任者와 後任者 間에 政策上의 지속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없다. 特定派閥의 執權期間中에도 政策이 대폭적으로 개편되기도 하였고, 심하면 조정·개혁·소멸되기도 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정지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40年의 기간동안에 中共의 政治는 4,5차례의 左派·右派間의 투쟁과 격동의 시련으로 점철되어 왔고, 그 결과는 오직 자원낭비와 인민의 재난뿐이었다. 결국 中共은 그동안 現代化의 길을 걸어 왔다고 말할 수 없다.³⁷⁾

셋째, 現代化事業에는 막대한 資金이 投入되어야 한다. 그러나 中共은 근본적으로 적은 外換保有庫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現代化사업에 투자할 능력이 없다. 「文匯報」에 인용·보도된 鄧小平과 趙紫陽의 말에 따르면, 大躍進運動과 文化大革命은 中共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大躍進運動이 推進된 3年동안에 中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1,200 億元(人民幣)에 달하였고, 文化大革命期間동안에는 다수의 꾀없는 人民들의 희생과 더불어 약 5,000 億元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이는 美貨 1,500 억달러에 해당된다). 이 두 손실을 합하면 약 6,200 億元이

37) Robert F. Deruberger, “The Domestic Economy and the Four Modernizations Program”, *China Policy for the Next Decade*, Report of the Atlantic Council’s Committee on China Policy, (Boston: Degeschilexger Cunn & Hain Inc., 1984), pp. 152~154.

되는데 이는 과거 대륙에서 30年동안 투자된 액수와 거의 맞먹는 것이다.³⁸⁾ 1978년에 채택된 華國鋒의 '10年計劃'에는 1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9年 2월에 鄧小平은 東京會談에서 이를 6,000억 원으로 삭감한다고 發表했는데, 앞으로 8年동안 투입될 이 6,000억 원의 資金은 과거 28年동안에 투입된 자금과 동일한 규모였다. 그러나 計劃이 本格的으로 추진되면서 中共은 말만 앞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計劃은 1년도 못가서 중단되었으며, 결국 中共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薛暮橋는 1980年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計劃에 의하면 7年間の 투자액을 과거 28年 동안에 투자된 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설정하는 동시에, 公업성장율을 年平均 10%, 농업성장율을 年평균 4.5%로 잡는다고 한다. 이는 根本的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大躍進運動과 마찬가지로 황당무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³⁹⁾

네째, 中國現代化에 최대의 치명상을 준 것은 바로 1950年代에 소련에 의해 수립된 '蘇聯모델'의 도입이다. 當時 蘇聯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中共은 소련에 農產品과 工業原料를 輸出하는 한편, 蘇聯으로부터 무상원조의 형식으로 완전한 형태의 工場設備를 輸入함으로써 工業化의 기초를 다졌다. 지난 30年동안에 쌍방은 20여년간의 기나 긴 단절시기를 끝내고 점차 화해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바, 화해증진과 더불어 가장 신속하게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貿易이다. 왜냐하면, 蘇聯은 中共의 저렴한 農產品과 工業原料가 필요한 반면, 中共은 蘇聯으로부터 3,40년전에 사들인 工業設備의 部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中共이 工業設備의 측면에서 蘇聯에 의존하면 할수록 中共의 歐美의 現代化된 새로운 設備 및 技術을 흡수할 능력과 기회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蘇聯으로부터 밖에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工業設

38) 「文匯報」(香港), 1987年 2月 5日字.

39) Robert F. Deruberger, *op. cit.*, p. 154.

備들에 대한 現代化推進은 中共을 더욱 낙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中共이 강조하고 있는 ‘4個原則堅持’이다. ‘社會主義路線 堅持’, ‘共產黨領導 堅持’, ‘無產階級專政 堅持’,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 堅持’라는 네가지 원칙은 自由民主的 政治體制樹立의 礎石이 되는 現代化를 원천적으로 制限하는 要素로 作用한다. 레닌이 오직 小私有者를 옹호하는 ‘糧食稅政策’으로 政治的 위기를 모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鄧小平과 中共의 指導者들도 ‘4個原則堅持’下에 ‘鳥籠經濟’(새장경제), ‘鳥籠政治’(새장정치)로써 中國을 진정한 現代化國家로 建設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政權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鄧小平은 今年 第13次 全人大會에서 하나의 政治改革方案이 定立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는 今年 7月 1日에 특별히 그가 1980年 8月의 ‘政治局擴大會議’에서 행한 “黨과 國家의 領導制度에 대한 改革”이라는 연설문을 「人民日報」에 다시 게재하면서 全黨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토록 하였다. 한편 趙紫陽도 ‘黨級幹部會議’에서 政治改革을 호소했다.⁴⁰⁾ 그러나 비록 그들이 政治體制改革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4個原則堅持’下에서는 어떠한 효율적인 政治改革도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우기 8억에 달하는 中國의 農民들이 원시적인 手工業生産水準에 머물러 있는 以上, 中共은 改革을 이를 힘과 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狀況下에서 現代化를 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 되리라 판단된다.

40) *Ibid.*, p. 172.